

3·1 운동기의 ‘평화’사상

조소앙과 한용운을 중심으로

이지원

대림대학교 교수, 근대사 전공

leejiwon519@gmail.com

- I. 머리말
- II. 1919년의 ‘평화’
- III. 조소앙의 ‘평화’ 표상과 지향
- IV. 한용운의 ‘평화’ 표상과 지향
- V. 보편가치로서 평화, 독립과 세계시민 지향
- VI. 맺음말

I. 머리말

‘평화’라는 말은 당연히 추구할 가치로서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2018년 한반도는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평화’의 상징처가 되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전쟁위협과 불안이 해소되고 평화가 올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역사적 전환기에 ‘평화’는 더 나은 삶을 위한 가치로서 대두하고 있다. 이에 3·1 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3·1 운동도 ‘평화’로 기억되고 기념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¹⁾

그러나 그동안 3·1 운동에 대한 연구와 기억에서 ‘평화’는 ‘민족’이나 ‘독립’보다 주목되지 않았다. 3·1 운동에 대한 기억과 기념은 민족사·국가사(national history)의 차원에서 ‘독립’을 지향하는 민족운동이나, 독립운동으로서 부각되었고, 대한민국 정부는 매해 삼일절 기념식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정치적 이념과 의도에 따라 3·1 운동을 표상하고 기념해왔다.²⁾ 사상사적인 측면에서는 민족사·국가사의 서사에서 민족주의 사상이나 근대정치사상의 발전을 강조해왔다.³⁾ ‘세계평화’, ‘동양평화’라는 상투적인 표현은 사용되었지만 3·1 운동기 평화사상을 다룬 연구는 미진하였다. 3·1 운동과 관련하여 ‘평화’를 주목한 연구로는 장인성, 전상숙, 허수 등의 연구가 있다. 장인성은 3·1 운동의 정치사상을 재해석하는 단서로서 ‘정의’와 ‘평화’라는 말을 주목하고, 민족·지역·세계라는 토포스(topos, 장소)의 속성과 상호관계 속에서 설명하였다.⁴⁾ 전상숙은 ‘민족대표’의 심문조서를 통해 민족대표의 평화론을 설명하였는데, 민족대표의 평화론은 평화달성의 실천방안이 부재한 ‘소극적 평화론’으로, 폭력적으로 운동을 진압한 일제 당국은 ‘적극적 평화론’으로 대비하여

1) 2018년 대한민국 정부의 3·1절 기념식 키워드는 ‘평화’였다. 또한 2018년 7월 4일 출범한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출범식의 표제어도 “평화로 완성되는 100년의 소원”이었다.

2) 이지원, 「역대 한국정부의 3·1절 기념사를 통해 본 3·1 운동의 표상과 전유: 정신적 측면을 중심으로」, 『서울과 역사』 99(2018) 참조.

3) 홍이섭, 「3·1 운동의 사상사적 위치」(1969), 『홍이섭전집』 6(연세대학교 출판부, 1994); 강재연, 「사상사에서 본 3·1 운동」, 『근대 한국사상사 연구』(한울, 1983); 박찬승, 「3·1 운동의 사상적 기반」, 한국역사연구회·역사문제연구소 편, 『3·1 민족해방운동연구』(청년사, 1989); 조동걸, 「3·1 운동의 이념과 사상」, 『3·1 운동과 민족통일』(동아일보사, 1989); 김용직, 「3·1 운동의 정치사상」, 『동양정치사상사』 4-1(2005).

4) 장인성, 「3·1 운동의 정치사상에 나타난 정의와 평화」, 『대동문화연구』 67(2009).

설명하였다.⁵⁾ 허수는 한국근대사에서 평화론 전개에 큰 계기가 되었던 러일전쟁기와 1차세계대전기를 주목하고 자강론과 개조론 내의 입장 차이에 따른 평화론을 추적하였고, 국제회의에 대한 실망이 커지는 1922년 전후 평화론의 재편양상을 검토하였다.⁶⁾

이 글은 기존의 3·1 운동 선행연구에 기반을 두면서도,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3·1 운동에 참여했던 주체들의 평화론, 평화사상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3·1 운동기 운동을 실천한 주체들이 '평화'를 어떻게 표상하고 지향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은 한국근대사상사에서 평화사상의 흐름과 평화사로서 3·1 운동의 면모를 구명하는데 의의가 있으리라 본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우선 1919년 시점 '평화' 인식의 지형과 맥락을 밝히고, 그러한 지형에서 3·1 운동기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이자 지식인이었던 조소앙과 한용운이 '평화'를 어떻게 표상하고 지향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조소앙과 한용운을 선택한 것은 1910년대 이후 일제말까지 친일의 길을 걷지 않으며 한국독립운동사와 근대사상사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보여준 인물로서, 당시 한반도 안팎을 무대로 전개되었던 한국독립운동의 공간성을 아우르기 위한 것이다. 물론 더 많은 인물들이 있으나, 이 글에서는 이 두 인물에 한정하여 각각 다른 공간 다른 활동영역을 갖고 있던 근대지성들이 독립운동과정에서 표상한 평화사상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3·1 운동기라는 시점에 초점을 맞추어 1919년에 조소앙과 한용운이 각각 작성한 글 〈대한독립선언서〉와 〈조선독립의서〉를 중심 텍스트로 삼아 분석하되, 필요한 경우에 1919년 이전 발표한 그들의 글들을 비교, 활용하였다. 3·1 운동기 시점의 평화사상을 1919년이라는 한시성과 함께 1910년대 한국사상사의 맥락에서 살펴보기 위함이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방법론으로 3·1 운동기 조소앙과 한용운이 표상하고 지향하였던 '평화'가 세계사에서 '평화'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시대배경, 동아시아 평화의 이중 질곡,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지적·사상적 기반들이 어우러지면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3·1 운동을 통해 한국근현대사상사에서 평화사상이 진전되는 것을 구명하는 것인 동시에, 20세기 세계평화

5) 전상숙, 「'평화'의 적극적 의미와 소극적 의미: 3·1 운동 심문조서에 드러난 '민족대표'의 딜레마」, 『개념과 소통』 4(2009).

6) 허수, 「20세기초 평화론」, 『역사비평』 106(2014).

사에서 강대국의 평화회의 체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저항과 독립의 정치지형에서 모색된 동아시아 평화사상의 사례연구가 될 것이다.

II. 1919년의 ‘평화’

1. ‘전쟁이 없는 상태’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3·1 운동이 일어난 1919년은 세계사적으로 ‘평화’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정의되기 시작한 때로 평가된다.⁷⁾ 그것은 1914-1918년의 제1차 세계대전이 계기가 되었다. 1919년 전후처리를 위한 강화회의는 ‘파리평화회의(Peace Conference at Paris)’로 명명되었고, 윌슨은 새로운 평화질서를 제시하고 1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공으로 1919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1차 세계대전은 ‘총력전’으로 치러져 그 피해가 이전의 전쟁과 달랐고, 19세기 말-20세기 초 유럽 국가들이 국제조약, 문명적 가치에 기반한 ‘제도로서의 평화(systematic peace)’ 만들기⁸⁾가 실패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유럽에서는 16세기 이래 주권국가들의 대두로 국가 간의 갈등과 전쟁이 빈번해지고 이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문명사회의 가치로서 ‘평화의 발명’이 규범화되기 시작하였다.⁹⁾ 루소나 칸트 같은 계몽사상가들은 전쟁에 대한 규범적 비판과 문명사회의 가치로서 ‘평화의 발명’에 뛰어들었다.¹⁰⁾ 이후 유럽에서 ‘평화’의 개념은 ‘전쟁이 없는 상태(the absence of war)’라고 규정되었고, ‘국가 간의 영속적 평화’로서의 ‘영구평화(Pax perpétuell)’¹¹⁾를 이상으로 삼게 되었다. 그러

7) Peter N. Stearns, *Peace in World History*(Routledge: NewYork & London, 2014); 이리에 아키라, 『20세기의 전쟁과 평화』(연암서가, 2016), 107-113쪽.

8) 1899년과 1907년의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헤이그협약(Hague Convention for the Pacific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등이 그것이다. 따지야나 심바르체바, 「1907년 헤이그평화회의의 개최과정과 그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9(2007).

9) 마이클 하워드 저, 안두환 역, 『평화의 발명: 전쟁과 국제질서에 대한 성찰』(전통과 현대, 2000); 이동기, 「평화사란 무엇인가」, 『역사비평』 106(2014).

10) 마이클 하워드(2000), 위의 책. 민주주의, 인민주권, 공화제 등에 기초한 국가연합을 통해 전쟁을 방지하고 이성적 평화질서를 탄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평화’는 더 이상 군주나 황제, 주교들의 ‘성스럽고 위엄을 갖춘 일’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나 이익’으로 간주되면서 비로소 근대적 의미의 규범적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었다.

나 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의 개념은 확장 심화되었다. 1946년 유네스코 1차 총회에서 ‘평화는 인류의 지적 및 도덕적 연대 위에 구축되어야 한다’라는 인식과 세계평화의 기초로서 인권을 상징한 ‘인권선언’을 채택함으로써 평화는 인권의 문제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제3차 세계대전을 방지하기 위한 학문, 즉 ‘인류 생존의 과학’으로서 평화연구(Peace Research) 또는 평화학(Peace Studies) 분야가 진전되면서, ‘평화’는 ‘전쟁 없는 상태’를 넘어 인간의 기본 욕구가 충족되는 사회적 조건 또는 차별과 억압이 없는 이상적 상태라는 인식으로 확장되었다. 그것은 사회의 구조적 폭력(Structural Violence)이 없는 상태를 지칭하는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라는 개념으로 평화개념을 확장한 것이다.¹²⁾ 요한 갈통(Johan Galtung)은 전쟁을 피한다는 의미의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에서 나아가 식민통지의 억압, 공업선진국에서의 인간 소외 등 전쟁이 없는 상태에서도 볼 수 있는 구조적 폭력문제를 제기하고 구조적 폭력을 해소하는 ‘적극적 평화’ 개념을 도입하였다. 오늘날 평화 연구는 ‘평화’가 강대국의 국제법적인 조약, 안보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세계시민주의에 의한 식민지·약소민족의 자결권과 해방의 문제를 다루는 역사가 포함되었고 평화를 만들기 위한 문화와 사상, 인권으로서 ‘평화권’에 대한 것까지 확장되었다.¹³⁾

100년 전인 1919년 3·1 운동 시기 한국인들의 ‘평화’ 사상은 주권국가들 간의 ‘전쟁 없는 상태의 평화’ 개념을 넘어서 주권 없는 식민지의 민족생존과 독립을 위해 인간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반대하는 ‘적극적

11) 빌헬름 안센 저, 한상희 역,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5: 평화』(푸른역사, 2010). 그것은 기독교 신학에서 말하는 ‘신 안에서 인간 영혼의 초시간적 평화’로서 ‘영원평화(pax aeterna)’ 개념이 세속화하여 정치적·사회적 개념으로 전도되었다.

12) 평화를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와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로 구분한 요한 갈통(Johan Galtung)에 의하면 적극적 평화는 구조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뜻하였다. 구조적 폭력은 한 사회의 구조나 체제가 갖는 폭력성으로 빈곤, 공포, 억압, 폭력, 인간이 만든 재해 및 전쟁 등을 포함한다. 진정한 평화는 이러한 구조적 폭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였다. 요한 갈통 저, 강종일 외 역,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들녘, 2000).

13) 이문영, 「평화의 문화, 문화의 평화」, 『사이間SAI』 14(2013); 1978년 유엔총회에서 「평화적 생존(Life in Peace)을 위한 사회적 준비에 관한 선언」(UN Doc. A/RES/33/73) 이후 1984년 11월 UN 총회에서 「평화에 대한 인류의 권리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 of Peoples to Peace)」(UN Doc. A/RES/39/11)이 제정되면서 ‘평화권’이 공식화되었다(임재성, 「평화권, 아래로부터의 만들어지는 인권」, 『경제와 사회』 91(2011), 180-184쪽.

평화', 인권으로서의 '평화권' 개념까지 확장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919년 한국은 1차 세계대전 전쟁의 교전국이 아닌 상황에서, 자유, 정의 등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평화'를 거론하고 있었다. 국제정치에서 주권국가 간의 조약과 동맹을 통해 평화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만 인정한다면, 19세기 이후 제국주의와 식민지 간의 갈등과 억압을 해결하고자 한 식민지 민중의 평화권은 세계평화사에서 시민권을 얻기 어렵다. 그 시기 서구국가들이 언급했던 평화는 식민지를 지배하던 강자들만의 평화였기 때문이다. 3·1 운동기 한국의 지식인들은 조선이 파리강화회의에서 거론하는 민족자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다. 당시 일본이 국제사회에 세계평화의 수정주의적 재구축을 주창하고 있던 상황에서¹⁴⁾ 그들은 세계개조의 시대 분위기, '평화회의', '국제연맹'이라는 평화체도를 매개로 '민족자결'의 주체, 평화의 주체가 되고자 하였다.¹⁵⁾ 베르사이유 체제를 한편으로 의지하면서도, 식민지민으로서 독립과 평화를 국제사회에 선언한 것이다. 만일 '평화'를 당시 강대국들의 협상에 의한 평화체제에 국한하여 적용한다면, 한국인들의 '평화'는 세상 물정에 어두운 자들의 어리석음일 뿐이었다. 민족자결주의의 적용 대상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강대국의 조약에 의한 세력균형이 아닌 정신적·도덕적 국제협조를 제기하며 국제사회에 주권을 알리기 위해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주권자로서 능력을 갖기 위한 민주적 결집과 저항을 조직하는 '공화제'의 정치체제를 구상하였다. 이것은 제국주의 시대의 세계사에서 식민지의 민족생존과 독립을 위한 '적극적 평화'와 '평화권'을 제시한 선구적인 역사이며, 제국주의의 식민지에 대한 억압적 폭력적 지배를 반대한 지구촌 약자의 평화운동이었다. 거기에는 제국주의시대 서구 중심의 평화체제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동아시아의 사상적·역사적 정서를 담아 동아시아 약소민족이 평화의 주체가 되고자 한 의지와

14)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鷹)가 1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가 '영미분위의 평화주의'라 비판하며 동아시아에서 국제관계를 주도하는 일본을 세계평화 한 축으로 재편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리에 아키라(2016), 앞의 책, 101-107쪽.

15) 민족대표 33인은 신문조서에서 대부분 베르사이유체제의 민족자결에 조선이 해당되지 않더라도 국제적인 평화정세와 새로운 개조의 사조에 기대어 민족자결을 선언하고 독립을 희망하였다고 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1990)에 수록된 「손병희 신문조서」, 「최린 신문조서」, 「오세창 신문조서」, 「권동진 신문조서」 등 참조. 이보연, 「3·1 운동에 있어서 민족자결주의의 도입과 이해」, 『3·1 운동 50주년 기념논집』(동아일보사, 1969); 전상숙, 「파리강화회의와 약소민족의 독립문제」, 『한국근현대사연구』 50(2009).

지향을 담고 있었다고 하겠다.

2. '평화'의 동아시아적 맥락과 '동양평화'

전통적으로 동아시아 문화권인 한국사회에서는 '국가 간의 평화',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평화'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서의 평화 개념은 사물의 성질이 온순함, 신체의 무탈, 마음의 평온, 조정의 안정, 갈등 없는 태평세월 등 유학의 '화평', '대동'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국제관계에서도 사대교린질서 인식이 중심이었다.¹⁶⁾ 또한 불교적 의미로는 존재 상호간의 정당한 관계수행을 의미하는 다르마(dharma)라는 가치기준에 입각하여 생명의 동질성과 그것의 바람직한 실현을 추구하는 것이었다.¹⁷⁾ 19세기 이전 동아시아 사상에서 평화 개념은 모순된 관계가 화합적 차원으로 가는 실천의 도덕, 정신의 가치를 의미하였다.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에 근대 유럽에서 사용된 국가 간 영속적 평화, 국가 간 전쟁이 없는 상태로서의 평화 개념은 19세기 유럽의 국제질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유입되었다.¹⁸⁾ 한국은 1876년 개항통상조약 체결 이후 만국공법을 국제관계의 새로운 기본원리로 받아들이면서 국제질서의 패러다임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국가 간의 영속적 평화 개념도 수용되었다.¹⁹⁾ 개항 이후 외국과 통상조약을 맺을 때 서구의 국제조약에 의거한 영원평화는 '만국공법통례(international

16) 윤사순, 「한국의 평화사상」, 이호재 편, 『한반도 평화론』(법문사, 1989); 김석근, 「한국 전통사상에서의 평화관념: '사대'와 '중화'를 중심으로」, 하영선 편, 『21세기 평화학』(풀빛, 2002), 77쪽; 이예안, 「'영원평화'의 기대지평과 근대한국: 일본제국주의 기획과 칸트의 세계시민주의 이상」, 『개념과 소통』 17(2016), 42쪽.

17) 정병조, 「한국인의 평화이념: 불교를 중심으로」, 이호재 편, 『한반도 평화론』(법문사, 1989).

18) 유럽의 근대적 peace=평화 개념이 동아시아에 도입되어 '평화'라고 번역하여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일본 메이지기 영국평화회(British Peace Society)에 자극받기 기카무라 토코쿠(北村透谷)가 1889년 일본평화회를 창설하고 1892년 기관지 『평화』를 창간한 이후부터이다. 이것은 주로 기독교 평화사상의 시각에서 사용하였다. 家永三郎, 『日本平和論大系』 1(東京: 日本圖書センタ, 1993); 하영선, 「근대 한국의 평화개념 도입사」, 하영선 외, 『근대 한국의 사회과학개념 형성사』(창작과비평사, 2009).

19) 장인성, 「근대 한국의 평화관념: '동양평화'의 이상과 현실」, 와타나베 히로시·박충석 편, 『한국·일본, '서양』(아연출판부, 2008); 하영선, 「근대 한국의 평화개념 도입사」, 하영선 외, 『근대 한국의 사회과학개념 형성사』(창작과비평사, 2009); 허수(2014), 앞의 논문; 이예안(2016), 앞의 논문.

law)’에 따른 ‘영원화평(友好·友邦·友睦(perpetual peace and friendship)’이라는 식으로 표현되었다.²⁰⁾ 《한성순보》나 《독립신문》 등에서는 세력균형을 통한 국제질서와 국제질서에 부응하는 ‘독립’과 ‘문명개화’를 연계시켜 자강군세의 평화론을 설명하였다.²¹⁾ 그것은 사회진화론에 기반을 둔 평화인식인데, 특히 청일전쟁 이후 청의 종주권이 실질적으로 소멸하게 됨에 따라 개신유학자들이나 문명개화론자들이나 모두 사회진화론에 기반을 둔 전쟁과 평화관을 공유하기 시작하였다.²²⁾

그러나 1894년 이토 히로부미가 청일전쟁을 ‘동양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표상한 이래 일본의 동양평화론·영원평화론은 동아시아 역내 평화에 이층의 질곡을 만들었다. 일본이 기획한 동양평화는 불평등조약을 통한 이권 독점과 그 영속화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급기야 “호상행복을 증진하고 동양평화를 영구히 확보”한다는 구실로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주권의 완전하고 영구한 양도, 한국의 독립 가능성 포기를 ‘동양의 영원평화’라고 한 일본의 침략적 동양평화 기획에 따라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었던 것이다. 이후 일본의 동양평화론은 아시아 전역에 대한 침략과 지배를 가속화시켰다. 이에 동아시아의 평화는 일본의 침략적 평화론, 전쟁적 평화론과 대항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평화는 만국공법체제의 주체가 되어 서양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에 편입되는 것과 일본의 침략적 동양평화론에 저항해서 독립을 실현하는 동아시아 글로컬(glocal: global+local) 평화라는 이중 과제를 안게 된 것이다.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이토 히로부미의 ‘동양평화’를 비판하며 세계평화와 지역평화에 대한 대항평화론을 제기한 것으로서 동아시아 글로컬 평화론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1919년, 일본의 동양평화론과 한국지배라는 침략이 지속되고 있는 한, 안중근이 제기한 동아시아 글로컬 평화의 과제는 여전히 유효하였다. 글로벌 평화 속에 동아시아의 평화는 역내 국가 간의 평등과 독립이 유지되는 글로컬 평화여야 했다. 조선독립-동양평화-세계평화라는 상관

20) 조미수호통상조약, 조영수호통상조약의 조선측 한문본과과 영문본에서 사용된 표현들이다. 이에안(2016), 위의 논문, 46-48쪽; 근대한국외교문서 편찬위원회, 『근대한국의 외교문서』 4, 5(동북아역사재단, 2012).

21) 하영선(2009), 앞의 논문; 장인성(2009), 「근대 한국의 세력균형 개념」, 하영선 외, 앞의 책.

22) 하영선(2009), 앞의 논문, 238-240쪽.

구도 속에 동아시아의 평화, 조선의 평화가 놓여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19년 ‘조선평화’, ‘동양평화’의 가능성을 부추킨 계기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제기된 ‘평화’에 대한 새로운 정의였다. 미국 대통령 윌슨은 1918년 1월 8일 전쟁종식과 민주주의 영구평화계획을 담은 ‘14개조’의 성명을 발표하였다.²³⁾ 그것은 전쟁에서 평화로, 전제주의에서 민주주의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가능성과 지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독일에 대한 혹독한 징벌에 기초한 ‘징벌적인 평화’이고, ‘영미 본위의 평화주의’의 속성을 갖고 있었으나,²⁴⁾ 종래 서구 국가들이 비밀외교와 세계 분할을 도덕적으로 부정함으로써, 새로운 개조의 시대 전환을 예고하였다. 특히 과거의 전쟁처럼 승자가 패자의 식민지나 영토를 분배하지 말고, 국제기구의 관할 하에 두는 것과 민족자결의 원칙 등이 제시된 것은 새로운 평화와 개조의 시대를 희망하게 되었다.

그러나 민족자결과 평화에 대한 윌슨적 해석에서 동아시아의 식민지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윌슨의 민족자결은 레닌의 민족자결 선언에 대응하여 서구 국가들의 도덕성을 제시하기 위한 측면이 있었고, 승전국의 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패전국의 영토에서만 시행되는 현실적·실리적인 국제정치 실상을 드러내고 있었다.²⁵⁾ 그러나 조선의 지식인, 독립운동가들은 개조의 시대 분위기, ‘평화회의’, ‘국제연맹’이라는 평화제도를 매개로 ‘민족자결’의 주체, 평화의 주체가 되고자 하였다.²⁶⁾ 일본 또한 연합국의 일원으로 윌슨의 14개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의의 원칙’을 유린한 한일강제병합을 무효로 하고, 강대국의 조약에 의한 세력균형이 아닌 정신적·도덕적 국제협조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²⁷⁾

그것은 평화에 대한 상상, 평화의 주체가 되는 상상이 있었기에 가능한

23) 유럽에서의 구체적인 영토문제, 비밀외교 포기, 항해의 자유, 경제적인 기회의 균등, 군비축소, 민족자결, 국제연맹의 설치 등이 포함되었다.

24) 이리에 아키라(2016), 앞의 책, 108쪽.

25) 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정치에서 이상주의 사조(utopianism, idealism)가 등장하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힘에 바탕을 둔 국제관계를 주장하는 전통적인 현실주의 사조(realism)도 공존하고 있었다. 이 시기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국제관계에 대해서는 E. H. Carr, *Twenty Years' Crisis, 1919-1939*(New York: Harper and Bow, 1964); 구대열, 『한국국제관계사연구』 1(역사비평사, 1995), 222-233쪽; 신용호, 「민족자결권의 주체로서 민족의 개념」, 『자치행정연구』 2(1997).

26) 앞의 주 15) 참조.

27) 김규식, 『파리강화회의에 제출된 별첨 메모란덤』 국가보훈처 편, 『해외의 한국독립운동사료(1): 국제연맹 편』(1991).

것이였다. ‘세계개조’의 분위기에 기대어 국제정치의 역학관계를 조정하는 ‘평화’의 주체가 되겠다는 것은 낭만적 상상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상상은 당시 서구 중심의 평화체제, 일본 중심의 동양평화가 갖는 정치적 평화에 대응하여 평화의 주체가 되겠다는 동아시아 식민지민으로서 자존과 저항의 표현이기도 하였다. 이것은 청일전쟁 이래 한국의 근대 지성들이 갖고 있었던 사회진화론적인 전쟁과 평화관을 극복하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나온 것이였다. 즉, 국제질서와 강대국의 세력균형이 제공하는 강요된 평화가 아니라 평등한 국제관계와 인간관계를 실현하는 평화의 주체가 되겠다는 인식의 전환이였다. 그것은 유럽이 주도하는 서구 중심의 ‘세계평화’도, 일본이 주도하는 ‘동양평화’도 아닌, 평등한 지구촌 구성원으로서의 독립과 자존의 평화, 세계-동아시아-식민지의 평등·협력구도에서의 평화였다.

3·1 운동 당시 한국의 지성들은 서구적 근대 평화체제가 국제관계의 기본시스템으로 작동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에서 평화 주체로서의 역할과 실천에 제약받았던 동아시아 식민지민의 ‘평화’에 대한 상상과 열망을 표현하였다. 새로운 시대에 평화의 주체로서의 상상과 인식은 당시 시대의 전환기를 치열하게 살아갔던 근대 지성들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하 조소앙과 한용운의 예를 통해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Ⅲ. 조소앙의 ‘평화’ 표상과 지향

1. <대한독립선언서>와 ‘평화’

<대한독립선언서>²⁸⁾는 1차 세계대전 종전기 국제정세의 소식에 훨씬 민감했던 해외독립운동가들이 국제사회에 한국의 독립을 선포한 것이다. <대한독립선언서>는 1910년대 내내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해왔고, 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기초하며 임정 수립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파리강화회의에 임시정부대표단으로 파견되었던 조소앙²⁹⁾이 작성했다

28) <대한독립선언서>, 독립기념관 소장 문서번호1-014726-000; 姜德相, 『現代史資料 26:三一運動篇(2)』(東京:みすず書房, 1967), 47-49쪽.

29) 이때 그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사회당대회에도 참여하여 한국독립에 대한

는 점에서 3·1 운동기 한국 독립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근대 지성의 평화 표상과 인식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하겠다.

조소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도이념인 '삼균주의'를 창안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³⁰⁾ 그는 1904년 성균관 경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황실 파견 유학생으로 선발되어 일본에서 1912년까지 유학생활동을 했다. 1913년 중국으로 망명하여 상해에서 신규식, 박은식, 신채호, 정인보 등과 함께 동제사와 박달학원 사업에 참여했고, 1919년 2-3월 중국 길림지역에서 해외 독립운동가 39인의 명의로 발표된 <대한독립선언서>를 작성하였다.³¹⁾

<대한독립선언서>의 발표주체는 중국 길림에서는 대한독립의군부라 했고, 미주 하와이 지역에서는 Korean National Independence League(대조선독립단)이라 했다.³²⁾ 대한독립선언서 서명자 중 한사람인 박용만에 의해 그해 4월 영문으로 번역되어 미주 하와이에 소개되었기 때문이다.³³⁾ 이 선언서는 중국 길림지역 독립운동 가들을 규합하여 조직한 대한독립의군부의 활동과 관련이 있다. 『지산외유일지(志山外遊日誌)』에 의하면 대한독립의군부의 조직은 1919년 2월 27일, <대한독립선언서> 발표 합의는 2월 28일, 대한독립선언서 초고 작성은 3월 2일, 대조선독립단 하와이지부 결성은 3월 3일, 4,000여장의 선언서 인쇄 및 우편발송은 3월 11일에 되었다고 한다.³⁴⁾ 대한독립의군부는 정윤태이 상해의 신규식

지원을 요청하고,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된 국제사회당집행위원회에서 한국독립문제를 국제연맹에 제출케 한다는 승인을 얻기도 하였다. 한시준, 「해제」,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조소앙편(1)』(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8-9쪽.

- 30) 김기승, 『조소앙이 꿈꾼 세상』(지영사, 2004); 홍선희, 『조소앙의 삼균주의 연구』(부코, 2014).
- 31) 조소앙, 『3·1 운동과 나』(1946년 2월), 『소앙선생문집』하(삼균학회, 1979), 67-68쪽에 의하면 조소앙은 3·1 운동 당시 길림에 있었고, 대한독립의군부를 조직하고 <대한독립선언서> 발표에 몰두하고 있었다고 한다.
- 32) 박용만은 대조선독립단(Korean National Independence League) 하와이지부를 1919년 3월 3일 결성하였는데, 본부가 '遼東'에 있다고 하였고 선언서가 똑같은 점에 비추어 길림의 대한독립의군부와 관련 있다고 하겠다. 국가보훈처, 『미주한인 민족운동자료』(1998), 609-620쪽.
- 33) 박용만의 비서 이원순이 Pacific Commercial Advertiser지에 게재되었던 3·1 운동 관련 문서를 편집하여 *True Facts of Korean Uprising and the Text of Declaration of Independence* 이라는 책자를 1919년 4월 25일 발행하였는데, 이 책자의 제5장에 박용만이 번역한 대한독립선언서가 영문으로 소개되어 있다. 독립유공자공훈록편찬위원회, 『독립유공자공훈록』 제1권(1994), 331-423쪽.
- 34) 정윤태, 『志山外遊日誌』(탐구당, 1983). 현재까지 대한독립선언서의 발표 경위에 대한 가장 자세한 기록으로 김기승은 『지산외유일지』를 펴고 있다(김기승, 『대한독립선언

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조소앙과 함께 추진하기 시작하여, 여준을 중심으로 길림지역 독립운동 활동가들을 규합하여 조직하였다. 이것은 당시 상해의 신한청년당과 일정한 관계를 갖고 추진되었는데, 신한청년당은 1918년 여운형 등 동계사의 젊은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조직이었다.³⁵⁾

〈대한독립선언서〉에서 ‘평화’는 다음 4군데에서 언급되고 있다.

- (1) 試看하라 民庶의 魔賊이든 天意의 餘焰이 已盡하고 인류에 부여한 **평등과 평화**는 白日이 當空하여 公의의 心과 자유의 保편은 실로 曠劫의 厄을 一洗코저하는 天意의 실현함이오 弱國殘族을 구제하는 대지의 복음이다.
- (2) 大하도다 時의 義여. 此時를 遭遇한 吾人이 無道한 強權束縛을 해탈하고 광명한 **평화독립**을 회복함은 天意를 對揚하며 人心을 순응코저함이며 지구에 입족한 권리로서 세계를 개조하여 대동단결을 협찬하는 소이일세 자에 이천만 대중이 赤忠을 대표하여 감히 황황일심계 조고하오며 세계만방에 誦誥하오니 우리 독립은 天人合應의 순수한 동기로 民族自保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함이오 결코 眼前 이해에 우연한 충동이 안이며 恩怨에 固한 감정으로 비문명인 보복수단에 자족함이 아니라 실로 항구일관한 국민의 지성 격발하여 彼 異流로 感悟自新케 함이며 우리 결심은 野鄙한 政軌를 초월하여 진정한 正義를 실현함 이라.
- (3) 참흠다 我 대중아. 公의로 독립한 자는 公의로 진행할지라. 일체 방편으로 軍國전제를 剷除 하여 민족평등을 全球에 普施할지니, 차는 아 독립의 第一義 오, 武力兼併을 근절하여 평균천하의 公리로 行진할지니, 차는 아 독립의 本령이오 密盟私戰을 엄금하고 大同平和를 선전할지니, 此는 아 復國의 사명이 오 同權同富로 一切 동포에 施하여 男女貧富를 齊하며 等賢等壽로 智愚老幼에 均하여 四海人類를 度할지니, 此는 아 독립의 기치오. 進하여 國際不義를 감독하고 우주의 眞善미를 체험할지니, 此는 我 韓民族이 應時復活의 究竟義니라.
- (4) 이천만 형제자매아. 國民 本領을 자각한 독립인 줄을 기억할지며, 東洋平和를 보장하고 인류평등을 실시키 위한 자립인 줄을 명심할지며, 皇天의 명령을 지봉하여 一切 邪網에서 해탈하는 건국인 줄을 확신하여 육탄혈전으로 독립을 완성할지이다.

서의 사상적 구조」,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2(1999)).

35) 신용하, 「3·1독립운동 발발의 경위: 초기 조직화단계의 기본과정」, 윤병석·신용하·안병직 편, 『한국근대사론』 2(지식산업사, 1977); 김희곤, 「신한청년당의 결성과 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1986).

(1)-(4)에서 평화는 평등-평화독립-대동평화-동양평화의 연계구도로 설명되고 있다. (1)에서 '평등'은 전제와 강권의 시대가 가고 서민들을 살리는 새로운 시대의 '공의의 심판'과 '자유'의 보편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것은 인간이 하늘의 뜻(天意)에 따르는 것이며, 약한 나라 힘없는 민족을 구제하는 대지의 복음이라고도 하였다. 즉 평등은 강한 자에게만 전유되었던 자유를 약한 자에게도 부여하는 것으로서, 평등한 평화는 강자중심이 아니라 억압받는 약자중심, 약자의 고통을 구제하는 것으로 보았다.

(2)에서는 공의에 의한 약자중심의 평화, 평등에 입각한 평화는 강권의 속박을 벗어나는 '평화독립'과 연계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평화독립은 하늘의 뜻을 따르는 지구에 사는 자의 권리로서 세계의 개조와 대동단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독립'은 민족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비문명적인 보복수단에 만족하기 위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국민'의 진정성에 의해 타자를 감화시키고 변화시키는 것,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한국의 평화독립은 강자들의 정치적 협상을 통한 세력균형의 평화가 아닌 '정의'의 실현이라는 도덕적 가치로 표상하였다.

(3)에서는 공의에 의한 평화독립은 '군국전제→민족평등으로, 무력경쟁→평균천하로, 密盟私戰→대동평화로, 男女貧富·智愚老幼→同權同富·等賢等壽하게 하는 것이라' 하여 독립의 지향점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서양이 주도하는 강대국들의 밀맹(密盟)과 전쟁을 반대하고 전 세계 민족의 평등해지고 천하가 균등해지는 세상을 지향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적 불의를 감독하고 우주의 진선미를 체현하는 한민족 부활과 대동평화의 주체로서 한민족을 부각시켰다.

그러한 구도의 연장선에서 (4)에서는 '국민' 본령의 자각, 동양평화와 인류평등의 실현, '건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독립을 완성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독립선언서>의 앞부분에서 조소앙은 '일본주의 동양평화는 동양의 적이며, 일본의 조선합방은 詐欺強迫, 불법무도, 무력폭행을 동원하여 국제법규를 어긴 것이며, 합방결과로 경제, 군사, 종족, 종교, 교육을 압박·제한하여 세계문화를 저해하였으니 인류의 적'이라고 적었고, 천의·인도·정의·법리에 따라 일본의 조선합방 무효의 선포를 명시하였다. 그는 일본의 침략적 동양평화를 대동평화의 원리로 비판하

며 국민으로서의 자각을 토대로 독립을 위한 투쟁에 헌신할 것을 강조하였다.

2. 평화에 대한 동서양 통합 사유와 대동평화

조소앙은 대한독립의 의미를 여러 각도에서 설명하는 가운데 ‘평화’를 부각시키고 있었다. 그에게 평화의 주체는 평등한 근대적 국민(民庶), 독립된 민족으로 표상되었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대동사상과 동서양 종교·사상에 대한 통합적 사유가 나타나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동서양 사상에 대한 섭렵이 반영된 결과라고 본다. 그는 일본 유학 이후 1910년대 유학, 불교, 도교, 기독교, 천문학, 서양철학 등 폭넓게 책을 읽고 동서양 종교와 사상을 섭렵하였다. 그 결과 자기 나름의 교리를 만들었는데, 1914년 1월 창시한 ‘육성교’가 그것이다.³⁶⁾ 육성교는 단군,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마호메트(6성자(聖子)의 가르침을 믿는 종교이다.³⁷⁾ 그 교리는 「일신교령(一神敎令)」³⁸⁾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동서양의 여러 종교·사상을 탐색하고 그것들을 통합하여 공동의 원리를 찾자 하였던 것이다. <대한독립선언서> 서명에 참여한 인물들이 단군 교도가 많고 ‘단군대황조’라는 표현 등에서 대종교와의 관련성을 들을 수 있으나, ‘복음·부활·죄악·천의’ 등의 기독교, ‘해탈·사망(邪網)’ 등의 불교, ‘살신성인·천명·대동’ 등 유학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점에서 육성교적 사고가 반영되었다고 본다.

19세기 말 이래 근대적 종교는 중세적 가치관과 세계관이 붕괴되고 서양 문물의 수용과 관련하여 근대적 가치와 정체성을 확립하는 문제와 연결되었다. 동학은 서학에 대응하여 사람을 곧 하늘로 여기는 민주구제의 종교로서, 기독교는 새로운 서구적 근대문명 개화의 길과 연관되어서,

36) 조소앙, 「동유락초」, 『소앙선생문집』 하, 240-245쪽; 김기승, 「조소앙의 사상적 변천 과정: 청년기 수학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3·4(1998); 서평일, 「조소앙의 육성교와 21세기 문명」, 『삼균주의 연구논집』 19(1999); 사사 미즈야키, 「조소앙의 대동사상과 아나키즘」, 『한국종교』 40(2016), 225-231쪽.

37) 조소앙, 「학지광에 축하」, 『學之光』, 1915년 2월(『소앙선생문집』 하, 244쪽). “우리 靈父 하나님의 聖權의 본체는 하나이자 …… 그 작용은 여섯 …… 독립자강은 단군, 慈悲濟罪는 석가모니, 忠恕一貫은 공자, 知德合致는 소크라테스, 愛人如己는 예수, 信行必勇은 마호메트 ……”

38) 『소앙선생문집』 상, 342-345쪽.

유학은 대동교와 같이 개혁과 구신을 통해 시대에 걸맞는 변화를, 단군을 근대 민족·국민의 정점으로 삼는 대종교의 등장, 불교는 갑오개혁 이후 도성 출입이 가능해지면서 전통의 근대적 계승과 개혁을 모색하는 등 한국 근대사의 정신적·사상적 변신과 개혁과 연관되어 있었다. 한국근대사에서 다양한 종교·사상의 각개약진은 종교 및 사상의 자유가 확장되는 근대 문화의 한 단면이었다.³⁹⁾ 그러나 근대 국민국가, 근대사회를 만드는 철학과 패러다임이 하나로 통합되지는 못하였다. 다만 다양한 사상과 종교 활동을 통해 근대를 만드는 철학과 사상의 모색 및 실천에 어느 정도 기여했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조소앙이 창안한 육성교는 신자를 확보한 종교는 아니었다. 그러나 근대적인 시대정신 모색의 일환으로 당시 근대지성들의 종교·사상활동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대한독립선언서>에는 종교적 교리만이 아니라 근대적 가치와 국민 주권의 사상이 함께 나타나고 있었다. 즉 전통적인 동서양사상과 종교를 결합하여 통합종교로 원리를 찾았던 육성교적 사고와 근대적 시대의식이 반영되었던 것이다. ‘국민’, ‘민서(民庶)’, ‘민족’, ‘자유’, ‘평등’, ‘평화’, ‘사해인류’ 등의 용어는 근대적 생각과 지향을 표상하는 언어들이었다.

이러한 동서양의 사상과 종교의 통합 속에서 제시한 평화가 위의 자료 (3)의 ‘대동평화’였다. ‘대동평화’나 (2)의 ‘대동단결’은 모두 유학의 대동사상에서 사용하는 용어였다. 『예기』 「예운편(禮運篇)」에 나오는 ‘대동’은 중국 사상가들 사이에서 고대의 이상사회로 인용되었다. 특히 청말 강유위(康有爲)는 공양학의 역사관을 토대로 ‘대동사상’을 제창하였고, 이것은 동아시아 각지의 사상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또한 무정부주의·사회주의·공산주의 등 서양의 급진적 정치사상을 수용할 때에도 ‘대동사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조소앙은 1917년 <대동단결선언>을 작성한 바 있었기에, 1919년 그의 사상과 언어에서 ‘대동’이라는 표현은 이미 익숙한 것이었다. ‘대동평화’는 대동세계의 평화를 의미하였다고 할 수 있다. 대동평화는 남녀빈부 모두 균등하게 동등한 권리와 번영(蕃)을 이루게 하여 사해인류를 구제하는 것을 지향하였다.

이와 같이 그의 ‘평화’에 대한 표상은 종교·사상적 특징을 결합하여

39) 서울대학교 종교문화연구소 편, 『종교와 역사』(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윤이흠, 「세계문화사의 맥락에 비친 한국의 종교와 문화」, 『종교와 문화』 1(1995).

유럽중심의 평화체제, 민족자결의 논의와 결을 달리하는 동아시아 식민 지민이 주체가 되는 평화를 지향하였다. 국망으로 국제정치에서 평화의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동아시아의 식민지민으로서 세계-동아시아-식민지의 평등적 세계관에 의한 평화의 구상이었다. 종교를 통한 범세계적 통합, '사해인류'의 구원이라는 사해동포사상, 대동세계를 지향하는 대동 평화 등은 정치적 평화주권이 없는 상황에서 보편적인 평화가치로의 평화의 주체가 되는 것을 꿈꿨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에서 평화의 주체가 되는 길은 독립이었다. 그것은 식민지민이 제국주의 강권에 대해 대등한 주권의 주장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동아시아 식민지에서 독립과 평화는 서양 중심, 강대국 중심의 평화보다 평등의 지향이 강할 수밖에 없었다. <대한독립선언서>에서 평화는 평등, 독립, 대동평화, 동양평화와 상관관계를 갖고 표상되었다. 근대적 평등을 전제로 한 평화, 국제사회에서 평등한 관계를 전제로 한 화합의 대동평화였고, 한국의 독립은 그러한 상태에서 인류평등과 동양평화의 국제관계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조소앙의 <대한독립선언서>에 표현된 평화사상은 강대국 중심의 평화에서 누락된 평등적 평화사상, 약자의 평화사상, 동아시아의 글로벌평화사상을 의미하며, 1919년 당시 식민지 평화사상의 특징과 자존성을 드러냈다고 하겠다.

IV. 한용운의 '평화' 표상과 지향

1. <조선독립의 서>와 '평화'

한용운은 승려, 시인, 독립운동가로서 3·1 운동기 불교계를 대표하여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는 3·1 독립선언서에 공약삼장을 넣어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독립운동 할 것을 강조하였고, 옥중에서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조선독립의 서>를 집필하였다. 그는 <조선독립의 서> 첫 문장에 '평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자유는 만유의 생명이요 평화는 인생의 행복이다. 고로 자유가 無한 人은 死骸와 同하고 平화가 無한 人은 最苦痛의 者라. 압박을 被하는 人의 周圍의 公기는 墳墓로

化하고 쟁탈을 事하는 자의 境涯는 지옥이 되느니 우주의 이상적 최행복의 실재는 자유와 평화라. 고로 자유를 득하기 위하여는 生命을 鴻毛視하고 平和를 保하기 위하여는 희생을 甘飴嘗하느니 此는 인생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일지르다.

그러나 자유의 公例는 人의 자유를 侵치 아니함으로 界限을 삼느니 侵掠的 자유는 물평화의 야만자유가 되며, 평화의 정신은 平等에 在하니 平等은 자유의 相敵을 謂함이라. 고로 威壓的 평화는 굴욕이 될 뿐이니 眞自由는 반드시 平화를 保하고 眞平和는 반드시 자유를 伴 할지라.⁴⁰⁾

한용운의 평화 인식은 생명 존중의 철학적·종교적 사유에서 시작되고 있다. 즉 자유와 평화는 생명과 행복이며, 평화가 없는 삶은 가장 큰 고통이라는 것이다. 그는 어린 시절 세상에 뜻을 품고 고향을 떠나 서울로 가던 길에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것부터 알고 일하지는 생각으로 강원도 오대산의 백담사에 들어가 승려가 되었다.⁴¹⁾ 불교적 사유는 분명 그의 사상적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승방(僧房)에서 은사스님인 연곡이 유학생들로부터 구해 준 『영환지략』, 『음빙실문집』 등을 읽으며 당시 격동하는 세계에 자극받아 행장을 꾸려 시베리아, 도쿄 등을 방랑 주유하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그는 칸트와 루소 데카르트 등 서양철학자들의 사상과 매튜 아놀드 같은 영국문학 비평의 글들을 접하며 서양철학과 문예사상을 섭렵하였다.⁴²⁾ 그러한 견문을 통해 그는 불교 종교인이면서도 시대를 인식하여 종교를 역사화·시대화하려는 인식을 발전시켜 갔다. 특히 한국근대 불교는 1895년 일련중 승려 사노(佐野前勳)가 승려의 도성출입을 건의하여 조선왕조의 억불정책에서 해방되었으나, 1911년 6월 조선총독부 사찰령에 의해 전국 사찰이 30본산제로 재편되어 사찰의 자치권과 운영권을 총독부에 귀속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불교의 근대적 혁신과 더불어 일제에 예속 친일화 되어가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그는 1910년대 양산 통도사에서 화엄교리를 설파하는 한편 안중근과 황매천을 추모하는 글을 짓기도 하고,⁴³⁾ 1913년 백담사에

40) 『韓龍雲全集』(이하 『전집』) 1(불교문화연구원, 1973), 354쪽.

41) 「시베리아 거쳐 서울로」, 『삼천리』 1933년 9월호, 『전집』 1, 254-255쪽.

42) 위의 글, 「시베리아 거쳐 서울로」; 『尋牛莊漫筆』 『전집』 1, 194-195쪽; 「北大陸의 하룻밤」, 『전집』 1, 246쪽.

43) 안중근의 거사를 칭송한 시 「安海州」와 황현의 충절을 위로한 시 「黃梅泉」 등을 지었다. 『전집』 1, 163쪽.

서 불교의 근대화, 대중화를 위한 <조선불교유신론>을 발표하여 불교계의 개혁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는 불교를 동양과 서양의 주요 종교 철학 사상과 비교하여 논했고,⁴⁴⁾ 불교가 깊은 산중이 아닌 대중 속에서 함께 호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시대에 뒤쳐진 구습이나 인습을 타파하려면 먼저 파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과감한 주장을 펼치기도 하였다.⁴⁵⁾ 1918년 4월 그는 서울로 와서 계동 43번지에 유심사를 세우고, 그해 9월 잡지 《유심(唯心)》을 창간하였다. 불교의 수행에서 강조하는 마음(心)을 화두로 하여 깨달음을 통한 사회 속의 불교 역할을 실천하고자 하였다.⁴⁶⁾

이러한 사상적 편력과 실천과정에서 한용운은 인간에 대한 종교적 성찰에 바탕을 두고, 인간 생명의 존립 조건으로서 ‘평화’를 표상하고 있었다. 즉 인간다운 행복한 삶은 평화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평화를 지켜야 하며,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희생을 달게 받을 수 있는 실천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피력하였다.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것은 생명 있는 인간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2. 평등의 역사성과 인민 주체의 평화

한용운의 평화사상의 핵심은 인간다운 행복의 조건인 평등을 전제로 하였다. 평등은 자유의 짝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평등하지 않은 위압적인 평화는 굴욕이 될 뿐이고 진정한 평화는 평등과 자유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조선불교유신론>에서도 ‘평등주의와 구세주의가

44) 칸트의 인식론과 베이컨의 자유론을 수용하여 자유의지에 의한 자아와 梁啓超가 부처와 칸트의 차이점으로 설명한 진아(眞我)와 진여(眞如)를 적용하여 불교의 성질을 설명하기도 하였다(『전집』 2, 35-43쪽).

45) 그의 불교개혁론은 승려의 교육 필요성, 승려의 생산활동, 불교의식의 간소화 등 불교의 적폐를 청산하고 혁신을 주장하는 것도 있었으나 염불당 폐지, 승려의 결혼 선택 자유 등 불교계에서 오늘날까지도 논란이 되는 파격적인 내용들도 있었다. 그는 이후 조선불교청년회 총재에 취임하여 일제하 불교혁신을 위해 교리의 민주화, 경전의 민주화, 제도의 민주화, 재산을 민주화 등을 제시하였다(《불교》 87호, 1931년 8월호, 37쪽).

46) 《唯心》을 간행하던 시기 그의 활동공간은 3·1 독립선언서가 작성되고 3·1 운동을 준비했던 곳이었다. 《唯心》의 필자는 최린, 최남선, 오세창, 권동진 등 3·1 운동 준비 인사들이 많았다. 3·1 운동 심문조서에 의하면 그는 《唯心》을 간행하던 시기에 도쿄에서 알게 된 천도교의 최린 등과 저녁마다 모여 시국을 이야기하고 3·1 독립선언서 작성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불교의 근본 사상'이라 하고 불교적 평등사상이 근세 서양의 자유주의, 세계주의와도 통한다고 피력한 바 있다. 정치의 민주화나 과학문명의 발달을 가능하게 한 서양의 자유주의는 깨달음의 불성을 가진 인간 모두 평등하게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불교식의 평등주의와 통한다는 것이다.⁴⁷⁾ 그리하여 근대 서양에서 자유주의는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자유를 평등하게 인식하였듯이, 인간에 대한 평등주의, 사회에 대한 평등주의에 바탕을 둔 평화를 설정하였다. 평등을 전제로 한 평화 표상은 조소앙의 평화 인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용운의 '평화' 표상에는 불교식의 평등주의만이 아니라. 평등의 근대성·역사성이 강조되고 있다.

자유여 평화여 전인류의 요구일지라도. 그러나 인류의 지식은 점진적이므로 草昧로부터 文明에, 쟁탈로부터 평화에 포함은 역사적 사실에 증명하기 미하도다 18세기 이후의 국가주의는 실로 전 세계를 풍미하여 騰奔의 절정에 제국주의와 그 실행의 수단 즉 군국주의를 산출함에 의하여 소위 우승열패, 약육강식의 학설은 最眞不變의 금과옥조로 인식되어 殺伐強奪 국가 혹은 민족적 전쟁은 자못 止息될 日이 無하여 혹 기천년의 歷史國을 丘墟하며 幾十百萬의 생명을 희생하는 事가 地球를 環하여 無한 處가 무하니, 전 세계를 대표할만한 군국주의는 서양에 독일이 有하고 동양에 일본이 有하였도다.⁴⁸⁾

즉 평등을 전제로 한 평화는 전 인류가 원하는 바인데, 문명의 발전과 함께 그 필요성이 더 커졌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18세기 이래 국가주의와 그 절정인 제국주의의 등장으로 군국주의가 발흥하여 우승열패·약육강식을 금과옥조로 강대국의 침략을 '평화'로 합리화했기 때문에, 근대 이후 평화는 더욱 필요해졌다고 보았다. 근대 국민국가 시대 이후 국가 간의 평등을 전제로 하지 않은 침략적 평화를 비판한 것이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일본의 동양평화론의 허구성을 비판하였다. 일본이 폭력으로 조선을 병합하고 이천만 민족을 노예로 대하면서도 '동양평화와 조선민족의 행복'을 운운하는 것도 그러한 침략적 평화의 예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전쟁을 반대하였다. 그는 '칼'을 만능의 '힘'으로 삼아 '정의'와 '인도'를 저버리는 것은 평화가 아니며, 침략은

47) 『전집』 2, 43-46쪽.

48) 『전집』 1, 354-355쪽.

반드시 전쟁을 유발하는 것이니 평화를 위한 전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소위 강자 즉 침략국은 군함과 철포만 多하면 자국의 野心을 충하기 위하여 不人道 蔑正義의 쟁탈을 행하면서도 그 이유를 설명함에는 세계 혹은 국부의 평화를 위한다든지 쟁탈의 목적물 즉 피침략자의 행복을 위한다든지 하는 등 자기기인의 망어를 놓하여 엄연히 정의의 天使國으로 自居하느니.....⁴⁹⁾

이러한 점에서 그는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군국주의를 타파한 연합국 또한 준군국주의라고 비판하였다. 전쟁으로 얻은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평화를 만드는 힘은 군함이나 총포를 동원하여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평등을 전제로 한 정의, 인도, 인민이라고 하였다.

전쟁의 終極을 高함은 何故뇨? 정의 인도의 승리요 軍國주의의 失敗니라. 然하면 정의 인도 즉 평화의 신은 연합국의 手를 借하여 독일의 軍國주의를 타파함인가. 曰 否라. 정의 인도 즉 평화의 신은 독일 인민의 手를 假하여 세계 軍國주의를 타파함이니 곧 전쟁 中의 獨逸革命이 是라.⁵⁰⁾

그는 정의와 인도를 ‘평화의 신’이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인민이 중심이 되는 정의와 인도가 평화를 만드는 힘이 된다고 하였다. 즉 1차 세계대전을 끝낸 것은 연합국의 힘이 아니라 평화의 신인 정의와 인도가 독일 인민의 힘을 빌려 군국주의를 타파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때 독일 인민의 힘은 전쟁 중에 일어난 독일혁명이라고 하였다. 그는 독일혁명은 사회당에 의해 이루어지고 러시아혁명의 자극을 받은 바 없지 않지만, 전쟁의 피해를 절감한 인민이 스스로 군국주의를 거부함으로써 공화혁명을 성공시키고 ‘평화를 개척’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연합국은 단지 이 틈을 타 어부지리로 전쟁에 이겼을 뿐이니, 전쟁의 승리지는 연합국만이 아니라 독일 인민이라는 논리를 폈다.⁵¹⁾

이러한 인민주체의 힘이 커지면서 ‘20세기 이후 정의 인도적 평화주의의 개막’이 시작되었고,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서 윌슨의 평화회담의

49) 『전집』 1, 354-355쪽.

50) 『전집』 1, 355쪽.

51) 『전집』 1, 348쪽.

조건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강대국의 군국주의의 시대적 종말 속에 ‘침략자의 압박 하에 신음하던 민족이 독립·자결을 위해 분투하게 되었으니, 폴란드, 체코의 독립, 아일랜드의 독립선언, 조선의 독립선언이 그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1차 세계대전 이후 ‘각 민족의 독립 자결은 자존성의 본능이요 세계의 대세라고 표현하였다. ‘독립·자결=자존성의 본능’이라는 명제는 앞에서 언급한 생명존중 사상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평화의 도덕성을 강조한 것이다.⁵²⁾

따라서 독립은 자존의 본능과 평등한 인간관계를 전제로 평화의 본능을 실현하는 것이고, 인민이 주체가 되는 ‘공화’의 역사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의 ‘평화사상은 생명 존중, 평등, 정의, 인도, 자존의 민족자결, 공화 등의 언어로 표상되었는데, 이때 평화의 주체로서 ‘인민’과 인민이 중심이 되는 독립의 당위성이 강조되고 있었다.⁵³⁾

V. 보편가치로서 평화, 독립과 세계시민 지향

조소앙과 한용운이 표상한 평화는 유럽 강대국들이 전후처리 조약을 통해 얻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국가 간의 폭력이 없고 인간에 대한 억압과 차별이 없는 상태를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그것은 국제관계에서 세력균형을 주도할 주권이 없는 식민지민이 평화의 주체이자 저항의 주체가 되어, 평등 생명 민주의 보편가치를 실현하고 민족생존과 독립이 보장되는 상태를 지향하였다.

이러한 평화사상은 당시까지 제국주의 세계사에서 없었던 동아시아 식민지 약소민족의 평화에 대한 주체인식과 서구중심의 사회진화론적 문명론에 대응한 평등한 세계시민 의식의 성장을 보여주었다. 당시 국제정치에서 한국이 독립된 주권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처지였지만, 약자인 식민지민도 세계시민으로서 세계평화와 행복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지향점을 제시한 것이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서양의

52) 그는 침략주의 시대에는 타국을 침략하는 것이 실리를 위한 길이었지만, 평화 즉 도덕주의 시대에는 민족자결을 찬동하고 약한 나라를 원조하는 것이 국위를 선양하는 명예가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전집』 1, 354쪽).

53) 『전집』 1, 354쪽.

강대국들이 평화체제를 거론하면서 동아시아 식민지민을 중심에 놓고 고려한 것은 아니었지만 ‘민족자결’이라는 표현은 강자독식이 아니라 약자의 주체인식과 다원론적인 문명인식의 전환을 촉진하였다고 본다. 제국주의의 식민지배를 합리화한 일원적 문명주의는 물질적 실력이 없으면 독립과 평화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사회진화론적 평화인식을 낳았다면, 다원적 문명인식은 독립과 평화 주체의 독자성과 다양성을 인식하게 하였다. 선실력양성 후독립이 아니라, 자존 및 독립의 절대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었다. 존재의 절대적 가치는 생명 있는 사람 모두가 갖는 평등한 가치였다. ‘민족자결=자존’이었고, ‘생명=평등’이었다. 물질적 실력 없이도 평화를 만들고 독립을 이룰 수 있다는 인식의 진전이였다. 자존과 생명의 주체가 되는 사상이었으며, 일원적인 가치에서 다원적인 가치로의 전환이었다. 평화주체로서 자존을 인식할 때, 저항과 독립의 주체로서 조선의 권리도 인식되는 것이었다. 한용운은 「조선독립의 서」에서 다음과 같이 문명발전의 일원론적 기준을 넘어서 독립 주체들의 자존을 강조하였다.

국가는 반드시 물질상의 문명이 일일이 완비한 후에 비로소 독립함이 아니라 독립할 만한 자존의 기운과 정신상의 준비만 有하면 족하니, 문명의 형식을 물질상에 발휘함은 刃을 匣하여 竹은 破함과 如할지니 何의 難事가 有하리요.⁵⁴⁾

물질적 문명이 완비된 국가의 국민만이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생명이 자존을 누리는 것이 곧 평화의 보편가치를 향유하는 것이었다. 즉 약자 자존의 생명력과 세계시민의 평등성이 실현되는 지점이였다. 이에 대해 조소앙은 대한독립선언서에서 다음과 같이 평등을 전제로 세계 우방의 동포들에게 독립과 민주의 자립에 함께할 것을 선언하였다.

我 大韓 同族 男妹와 暨我 遍球 友邦 同胞아 아 대한은 완전한 자주독립과 신성한 평등복리로 아 자손여민에 世世相傳키 위하여 자에 이족전제의 虐壓을 해탈하고 大韓民主의 자립을 선포하노라 …… 아 민족은 능히 自國을 옹호하며 萬邦을 和協하여 세계에 共進할 天民이다.

54) 『전집』 1, 356쪽.

평등은 대외적으로 국가 간의 평등과 대내적인 민주평등을 의미하였고, 세계동포들과 함께하는 보편적인 것임을 강조하였다. ‘평화독립’은 하늘의 뜻(天意)에 따른 천부적인 권리를 이행하는 책임이며, 이는 곧 세계를 개조하여 ‘대동평화’를 건설하는 세계시민으로서의 권리이자 의무였다.

생명과 민주평등의 보편가치와 세계시민을 지향하는 구도에서 베르사이유 평화체제를 넘어서는 글로벌평화로서 동양평화를 위한 저항과 독립운동이 설정되었다. 조소앙은 <대한독립선언서>에서 일본이 동양평화를 거론하며 한국을 병합한 것은 평등의 평화가 아니라 “凡日本主義를 亞洲에 肆行 함이니, 이는 동양의 적”이고, 일본의 한국합병 결과 군정의 야만적 통치와 경제 압박으로 “세계문화를 저해하였으니 인류의 적”이라 하였다. 그리고 민권에 기초하지 않고 주권이 한민족에서 이민족으로 양도된 것은 근본적으로 무효라고 하였다. 조소앙은 일찍이 1917년 <대동단결선언>에서도 경술국치를 ‘융희황제의 주권포기’라고 하였는데, ‘帝權 消滅의 時가 즉 民權 발생의 時’라고 하여 1910년 이후 국민주권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라고 보았다.⁵⁵⁾ 민권이 중심이 된 조선의 독립은 왕권의 주권포기와는 다른 동양평화·세계평화의 중요한 기반이었다. 민권에 의한 국민주권은 동양이나 서양을 제한하지 않는 보편적인 근대사의 원리이며 평등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동양평화·세계평화는 내적으로 국민주권의 평등과 외적으로 국민주권 국가 간의 평등을 통해 가능한데, 그것은 앞에서 살핀바와 같이 ‘밀맹사건의 평화조약이 아니라 “國民 本領을 자각한 독립”이며 “東洋平和를 보장하고 인류평등을 실시”하기 위한 평화라고 하였다.

요컨대 3·1 운동기 사상과 실천에서 시대와 함께 하던 한국 지성들의 ‘평화’는 베르사이유의 조약 같은 정치적 협상으로 얻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평등, 민주, 민권의 평화라는,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보편적인 가치로서의 평화를 지향하고 있었다. 또한 그것은 보편적 가치를 저항의 수단으로 동원하며 식민지민의 생존과 독립을 지향한 정치적 담론이자,

55) 이러한 인식에서 그는 1919년 <대동단결선언>에서 국내 동포들이 일본의 압제 하에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니 해외동포들의 국민주권을 상속받아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무상입법’ 기구로서 임시정부 수립을 촉구하였다. 조동길,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1917년의 <대동단결선언>」, 『한국민족주의의 성립과 독립운동사연구』(지식산업사, 1989) 참조.

세계시민의식을 지향한 평화사상이었다.

VI. 맺음말

이상에서 1919년 3·1 운동기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이자 지식인이었던 조소앙과 한용운의 ‘평화’ 표상과 지향을 살펴보았다. 3·1 운동기 한국 지성들이 표상하고 지향하였던 ‘평화’는 1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론, 동아시아 역내의 동양평화에 대한 이중 질곡,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지적·사상적 기반들이 어우러지며 나타나고 있었다. 이들의 ‘평화’사상은 서구국가에 처음 등장한 ‘평화의 발명’이나 ‘전쟁이 없는 상태’의 평화 개념을 넘어서 인간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없는 ‘적극적 평화’, 인권으로서의 ‘평화권’의 개념을 적용하여 살펴볼 수 있다. 그것은 제국주의 시대의 세계사에서 평등, 민주, 민권의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를 표상하며, 식민지에 대한 억압적·폭력적 지배를 반대하고 식민지민의 생존과 독립을 지향한 평화사상이었다. 아울러 제국주의시대 서구 중심의 평화체제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글로벌(global) 평화와 함께 동아시아 역내 국가간의 평등과 독립이 유지되는 글로컬(glocal) 평화라는 이중 과제의 해결을 지향하였다. 조소앙과 한용운은 1919년 시점에 동아시아의 맥락과 언어로 ‘평화’에 대한 표상과 지향을 설명했던 것이다.

이때 평화는 민권과 평등이 실현될 때 가능하다고 하였다. 내적으로 국민주권과 외적으로 국민주권 국가 간의 평등을 전제로 하였고 국민권이 중심이 된 조선의 독립은 동양평화·세계평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조소앙과 한용운은 평화를 근대적 국민임을 자각하고 동양평화와 인류평등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표상하고 지향하였다. 그것은 평화시위와 같은 방법론적인 평화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 시대의 품격을 보여주는 원리적 가치로서의 평화였다. 원리적 가치로서 평화사상은 동아시아의 사상적, 종교적 통합의 면모도 보이고 있었다. 조소앙은 육성교를 제창할 정도로 종교를 통한 범세계적 통합, 사해인류의 구원이라는 사해동포사상, 대동세계를 주장하였는데, 그가 주장한 대동세계의 대동평화는 정치적 평화주권이 없는 상황에서 보편적 평화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평화사상의 지향점으로 제시되었다. 한용운은 불교

의 근대적 전환이라는 실천과정에서 인간에 대한 종교적 성찰에 바탕을 두고, 인간 생명의 존립 조건으로서 '평화'를 표상하고 있었다. 생명존중의 종교적 사유와 함께 평화는 생명, 행복, 자유와 짝하는 것으로 표현되었고, 저항의 의지를 불태우는 순간에도 폭력이나 증오가 아닌 평화를 이야기하였다.

3·1 운동기 조소앙과 한용운 등 한국의 지성들이 보여준 '평화' 사상은 두 가지 점에서 오늘날에도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하나는 강대국 주도의 정치적 평화조약 체제하에 강대국들이 주목하지 않은,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지위의 동아시아 식민지가 평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그것은 세계인 모두가 평화의 주체로서 평등하다는 것을 제시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평화는 민주, 민권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시한 것이다. 평화는 지배권력자들의 정치적 협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권과 민주에 바탕을 둔 생명과 자유를 존중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민주와 민권을 기초로 세계평등의 평화를 실천한다면 평화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 100년 전 3·1 운동기 한국의 근대지성들이 제시한 평화사상은 21세기 지구촌의 전쟁과 갈등, 폭력에 대응하는 세계시민의 평화, 인권에 기초한 평화의 가치로서 많은 시사점을 준다.

참 고 문 헌

1. 기초자료

- 姜徳相, 『現代史資料 26: 三一運動篇(2)』. 東京: みすず書房, 1967.
국가보훈처 편, 『해외의 한국독립운동사료(1): 국제연맹 편』. 1991.
국가보훈처, 『미주한인 민족운동자료』. 1998.
국가편찬위원회 편,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990.
정원택, 『志山外遊日誌』. 탐구당, 1983.
『소양선생문집』 상·하. 삼균학회, 1979.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조소양편(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韓龍雲全集』 1, 2. 불교문화연구원, 1973.

2. 단행본

- 구대열, 『한국국제관계사연구 1』. 역사비평사, 1995.
김기승, 『조소양이 꿈꾼 세상』. 지영사, 2004.
마이클 하워드 저, 안두환 역, 『평화의 발명: 전쟁과 국제질서에 대한 성찰』. 전통과 현대, 2000.
빌헬름 얀센 저, 한상희 역,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5: 평화』. 푸른역사, 2010.
서울대학교 종교문화연구소 편, 『종교와 역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와타나베 히로시·박충석 편, 『한국·일본, '서양』. 아연출판부, 2008.
요한 칼통 저, 강종일 외 역,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들녘, 2000.
이리에 아키라, 『20세기의 전쟁과 평화』. 연암서가, 2016.
이호재 편, 『한반도 평화론』. 법문사, 1989.
하영선 외, 『근대 한국의 사회과학개념 형성사』. 창작과비평사, 2009.
하영선 편, 『21세기 평화학』. 풀빛, 2002.
홍선희, 『조소양의 삼균주의 연구』. 부코, 2014.

- E. H. Carr, *Twenty Years' Crisis, 1919-1939*. NewYork: Harper and Bow, 1964.
Peter N. Stearns, *Peace in World History*. Routledge: NewYork & London, 2014.

- 家永三郎, 『日本平和論大系1』. 東京: 日本圖書センタ, 1993.

3. 논문

- 강재연, 「사상사에서 본 3·1 운동」. 『근대 한국사상사 연구』. 한울, 1983, 237-273쪽.
김용직, 「3·1 운동의 정치사상」. 『동양정치사상사』 4-1, 2005, 47-66쪽.

- 김희곤, 「신한청년당의 결성과 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 1986, 141-175쪽.
- 박찬승, 「3·1 운동의 사상적 기반」. 한국역사연구회·역사문제연구소 편, 『3·1 민족해방운동연구』, 청년사, 1989, 407-439쪽.
- 샷사 미즈야키, 「조소앙의 대동사상과 아나키즘」. 『한국종교』 40, 2016, 221-246쪽.
- 서광일, 「조소앙의 육성교와 21세기 문명」. 『삼균주의 연구논집』 19, 1999, 155-179쪽.
- 신용하, 「3·1 독립운동 발발의 경위: 초기 조직화단계의 기본과정」. 윤병석·신용하·안병직 편, 『한국근대사론』 2, 지식산업사, 1977, 156-180쪽.
- 이동기, 「평화사란 무엇인가」. 『역사비평』 106, 2014, 16-36쪽.
- 이보연, 「3·1 운동에 있어서 민족자결주의의 도입과 이해」. 『3·1 운동 50주년 기념논집』 동아일보사, 1969, 378-399쪽.
- 이에안, 「'영원평화'의 기대지평과 근대한국: 일본제국주의 기획과 칸트의 세계시민주의의 이상」. 『개념과 소통』 17, 2016, 40-85쪽.
- 이지원, 「역대 한국정부의 3·1절 기념사를 통해 본 3·1 운동의 표상과 전유: 정신적 측면을 중심으로」. 『서울과역사』 99, 2018, 243-281쪽.
- 임재성, 「평화권, 아래로부터의 만들어지는 인권」. 『경제와 사회』 91, 2011, 167-210쪽.
- 장인성, 「3·1 운동의 정치사상에 나타난 정의와 평화」. 『대동문화연구』 67, 2009, 435-477쪽.
- 전상숙, 「'평화'의 적극적 의미와 소극적 의미: 3·1 운동 심문조서에 드러난 '민족대표'의 딜레마」. 『개념과 소통』 4, 2009, 35-61쪽.
- 조동걸, 「3·1 운동의 이념과 사상」. 『3·1 운동과 민족통일』, 동아일보사, 1989, 11-44쪽.
- 조동걸,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1917년의 <대동단결선언>」. 『한국민족주의의 성립과 독립운동사연구』, 지식산업사, 1989, 314-338쪽.
- 허수, 「20세기초 평화론」. 『역사비평』 106, 2014, 37-68쪽.
- 홍이섭, 「3·1 운동의 사상사적 위치」(1969). 『홍이섭전집』 6,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4, 77-85쪽.

국 문 초 록

이 글은 1919년 3·1 운동 시기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이자 지식인이었던 조소앙과 한용운의 ‘평화’ 표상과 지향을 살펴본 것이다. 이는 3·1 운동을 통해 한국근대사상사에서 평화사상이 진전되는 것을 구명하는 것인 동시에, 20세기 세계평화사에서 동아시아 평화사상에 대한 사례 연구이다.

3·1 운동기 한국 지성들이 표상하고 지향하였던 ‘평화’는 서구 열강들의 ‘평화의 발명’이나 ‘전쟁이 없는 상태’의 평화 개념을 넘어서는 내용이었다. 그것은 제국주의의 식민지에 대한 억압적·폭력적 지배를 반대한 평화사상이었으며, 인간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없는 ‘적극적 평화’와 인권으로서 ‘평화권’을 지향하였다. 또한 글로벌(global) 평화와 함께 동아시아 역내 국가 간의 평등과 독립이 유지되는 글로컬(global) 평화라는 이중 과제의 해결을 지향하였다.

조소앙과 한용운이 표상하고 지향한 평화는 내적으로 국민주권과 외적으로 주권 국가 간의 평등을 전제로 하였다. 민주민권이 중심이 된 조선의 독립은 동양평화·세계평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조소앙이나 한용운은 평화를 근대적 국민임을 자각하고 동양평화와 인류평등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표상하고 지향하였다. 그것은 평화시위와 같은 방법론적인 평화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 시대의 품격을 보여주는 원리적 가치로서의 평화였다. 원리적 가치로서 평화사상은 동아시아의 사상적, 종교적 통합의 면모도 보이고 있었다.

3·1 운동기 사상과 실천에서 시대와 함께 했던 조소앙이나 한용운의 ‘평화’는 베르사이유의 조약 같은 정치적 협상으로 얻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평등, 민주, 민권의 평화라는,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보편적인 가치로서의 평화를 지향하고 있었다. 또한 보편적 가치를 저항의 수단으로 동원하며 식민지민의 생존과 독립을 지향한 정치적 담론이자, 세계시민의식을 지향한 평화사상이었다.

투고일 2018. 9. 27

심사일 2018. 10. 11.

게재 확정일 2018. 11. 20.

주제어(keyword) 3·1 운동(March 1st Movement), 조소앙(Cho So-ang), 한용운(Han Young-woon), 평등과 민권의 평화(peace for equality and civil rights), 세계평화(world peace), 동양평화(East Asia peace), 대동평화(Daedong peace)

Abstracts

The March 1st Movement and ‘Peace’ Thought: Focus on Cho So-ang and Han Young-woon

Lee, Ji-won

This article examines the representations and orientations of ‘peace’ conceived by Cho So-Ang and Han Young-Woon, who were representative independence activists and intellectuals during the period of the March 1st Movement of 1919. I believe that an inquiry into their notions of peace would reveal the progress of peace ideology in Korean modern history, which manifested in the March 1st Movement, and provide a case study on East Asian peace ideologies within the history of 20th-century world peace.

The ‘peace’ that Korean intellectuals represented and pursued in the period of the March 1st Movement was in entanglement with the peace theory of the post-World War I era, the duality of East Asian peace, and the traditional intellectual and ideological foundations of East Asia. Their concept of ‘peace’ could be understood in connection with the concept of ‘Positive Peace’ without discrimination and oppression beyond the notions of ‘invention of peace’ and ‘peace without war’. Marked a pioneering history by proposing ‘Positive Peace’ and the ‘right of peace’ during the imperial epoch in world history, it was a peace ideology against oppressive and violent domination of colonies by imperial powers. In addition, it aimed to solve the dual task of global peace and glocal peace, aspiring to maintain equality and independence among East Asian countries in the backdrop of the expanding West-centered peace system in the imperialist era.

At that time, the realization of civil rights and equality were prerequisites to peace. It was premised, internally, on national sovereignty, and externally, on equality between sovereign nations. Korea’s independence, whose focus lied on democratic civil rights, was viewed as an important factor for the realization of East Asia peace and world peace. Cho So-ang and Han Yong-woon viewed the desire for peace as an awakening as a modern nation and sought to promote peace and harmony in the East. It encompassed not only the methodological sense of peace, like peace demonstrations, but also peace as a fundamental value exhibiting the consciousness of people and the character of an era. As a principal value, the idea of peace had the facet of ideological and religious integration in East Asia.

I think that the idea of ‘peace’ pursued by Korean intellectuals involved in the March 1st Movement such as Jo So-ang and Han Yong-woon has significance in two aspects. One is that the East Asian colonies—many of them were the world’s poorest countries and had not been noticed by the great powers under the political peace treaty system forged by them—can be subjects of peace. It suggests that all the peoples of the world are equal as subjects

of peace. The other is that peace comes with democracy and civil rights. Peace is not achieved by political negotiations of ruling powers, but through respect for life and freedom based on civil rights and democracy.